

E-03 공동생활과 가족금융의 규칙

생활비·공동계좌·개인재산·채무·보증의 경계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정합니다.

학습자용

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·비교·행동·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. 왜 배우는가

함께 생활한다고 모든 돈과 책임이 자동으로 공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생활비 분담, 공동목표, 각자의 채무와 가족지원 범위를 미리 합의하고 기록해야 갈등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공동생활의 금융안전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유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합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. 보증·명의대여·대출은 호의와 별개의 법적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2. 먼저 알아야 할 말

공동재무 규칙

공동지출·저축·의사결정의 기준을 합의한 기록입니다.

생활 예: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은 함께 확인하도록 정합니다.

연대보증

주채무자와 별도로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.

생활 예: 가족의 사업대출 서명 전 책임범위를 확인합니다.

금융통제

상대방의 돈·계정·정보를 동의 없이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.

생활 예: 비밀번호 공유를 강요하거나 임금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를 구분합니다.

3. 판단 순서

- 1단계. 공동지출과 개인지출을 구분한다
- 2단계. 공동목표와 분담기준을 정한다
- 3단계. 각자의 기존 채무와 정기지원 범위를 공유한다
- 4단계. 보증·명의·계정은 별도 동의가 필요함을 확인한다
- 5단계. 정기적으로 재협의할 날짜를 적는다

4. 맞는 예와 반대 예

비교 1

맞는 접근: 공동지출·개인지출·의사결정 한도를 합의해 기록한다

반대 접근: 한 사람이 모든 계좌와 비밀번호를 관리한다

이유: 공동관리는 동의와 투명성을 필요로 하며 일방 통제와 다릅니다.

비교 2

맞는 접근: 보증·공동대출은 책임범위와 최악의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

반대 접근: 가족의 부탁이므로 계약서는 나중에 읽는다

이유: 가족관계와 계약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.

5. 내가 해 보기

가상 동거가구의 생활비·부채·가족지원 상황을 보고 공동재무 합의서의 항목과 의사결정 한도를 정합니다.

-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.
- 비용·위험·권리·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.
- 결정과 이유,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.

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. 실제 소득·자산·부채·계좌번호·가족갈등·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.

6. 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97 서민금융콜센터
- 1600-5500 신용회복위원회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7. 오늘의 한 행동

공동생활에서 함께 정할 돈의 규칙 세 가지를 적습니다.

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

국가법령정보센터

<https://www.law.go.kr/>

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

<https://fine.fss.or.kr/>

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안내

<https://www.fss.or.kr/>

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·세금·법률·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.